

내년 국비 712억 확보…‘글로벌 전남 관광’ 순항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착공

‘2026 섬 방문의 해’ 섬 관광 활성화

전남도가 지역색을 살린 매력적 관광지 개발과 2026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해 2026년 관광 분야에 712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 ‘글로벌 관광 전남’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남해안권을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 착공과 전남 섬의 매력을 알리는 섬 방문의 해 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보석 같은 섬·갯벌·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착수된다.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10억원(총사업비 401억원), 완도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16억원(총사업비 150억원), 고흥 선셋가든 관광 경관 명소화 29억원(총사업비 106억원), 여수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31억원(총사업비 213억원) 등 총 27개 세부사업, 663억원(총사업비 6천376억원)을 확보, 전남 곳곳이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첫삽을 뜨게 됐다.

또한 전남도는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2026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비 등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섬 반값여행’을 추진하고 섬 특화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 프로그램, 지역 참여 행사 등을 통해 전남의 글로벌 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섬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화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7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전남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1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영암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총사업비 380억원) 등을 확보해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 관광 분야, 스포츠 분야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유현호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이 가진 관광자원의 매력을 새롭게 선보일 의미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확보된 국비가 실질적 지역 경제 파급 효과로 이어지도록 관광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등 2026년 관광 분야 예산으로 71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글로벌 관광 전남’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세계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여수 개도 전경.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6일 도청 왕민실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 합동 시상식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올해 전남 중소기업 대상에 (주)에이비알

道 ‘2025 中企 합동 시상식’ 개최

산업평화상 대상은 두원기업(주)

수상기업 정책자금 응자 등 지원

전남도는 지난 26일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 현장 숙련기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25 중소기업 합동 시상식’을 열고 기업경영·노사화합·숙련기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

둔 기업과 개인을 시상했다.

전남도는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대상(주)에이비알, 금상(주)아르고마린토탈(주), 은상(주)삼우에코, 동상(주)토탈산업(주) 등 4개 기업이 선정됐다.

노사 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수여되는 산업평화상은 대상 두원기업(주), 금상(주)박주용 케이씨(주) 대표, 은상 조정훈(주)

데케미칼(주) 사무, 동상 김병곤(사) 여수산단건설협의회 대표가 받았다.

전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은 (주)대창식품, (주)광일식품, (주)유원산업기술, (주)에이블탑, 대한풀리켐(주), (주)코스, 아르고마린토탈(주)가 선정됐다. 수상 기업에는 3년간 정책자금 최대 20억원 응자, 스마트공장·판로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 가산점이 제공된다.

전남도 명장은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과 기술 전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로 김재근·박명희·임형지·심은홍·육상석씨 등 5명이 선정됐다. 명장에게는 명장 현관과 증서, 연간 100만원씩 5년간 총 500만원의 기술장려금이 지급된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재난안전특교세 1억3천만원 확보

자치단체장 의지·대응 역량 호평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40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공통 분야(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재난 상황 대응 역량) ▲예방 분야(교육·홍보, 유형별 저감 활동, 시설물 안전관리 실적) ▲대비 분야(매뉴얼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자원관리, 재난 대비 훈련 및 재난문자 송출 훈련) ▲대응 분야(재난 대응 실무반과 책임자의 역량, 조동 조치 능력, 실제 재난 사고 대응 사례) ▲복구 분야(현장 수습 관리 역량, 재난 구호, 복구 지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서류 검증과 현장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시정의 제1책무로 삼고 재난안전 지휘본부 역할을 강화해온 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대응 역량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 기술의 진보로 재난 양상이 단일 재난에 그치지 않고 신종·복합재난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전은 필수다’를 민선 8기 안전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복합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변은진 기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오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전남도는 28일 “올해 203억원을 들여 여성농어업인 10만1천700여명에게 지급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해 영화, 서점, 미용,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한 사업이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 의료업종(병원·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을 20~75세에서 20~80세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나 전환이 불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재정 기자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①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① 자전거는 한 줄로!



② 우회전 차량에 주의!



③ 횡단보도는 두 번로!



②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④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자전거는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

⑤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①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②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